

달콤살벌한 과일값... “추석 과일선물은 언감생심”

광주시 서구 매월동 서부농수산물 도매시장 가보니

거창 홍로 10kg 도매가 8만3천원... 전년비 2만원 올라 폭염·폭우에 생산량 줄고 수산물 기피에 수요 몰린 탓 복숭아 2배·신고배 33% 상승 “명절 다가오면 더 뿔 듯”

지난 9일 오전 7시께 찾은 광주시 서구 매월동 서부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청과공판장. 경매사의 호장이 내부를 가득 채운 공판장 안은 긴장감이 흘렀다. 경매 1권이 완료되기까지는 10초가 채 걸리지 않았다. 손에 든 응찰기와 전광판을 번갈아 쳐다보며 원하는 물건을 낙찰받기 위한 중도매인들의 눈치작전이 한창이었다.

엘베트 품종 복숭아 4kg짜리가 2만7000원에 낙찰되자 “비싸다 비싸...” 상인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눈 깜짝할 새 지나가는 경매에 탄식할 틈도 없었지만, 상인들 사이에서는 가격에 대한 아쉬움이 묻어났다.

이곳에서 만난 11년 차 청과 중도매인은 “복숭아 가격이 전년과 비교하면 5000원 넘게 오른 것 같다. 당장 지난주보다도 1000~2000원은 오른 느낌이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은 배, 복숭아, 토마토, 사인머스켓, 포도, 사과 순서로 진행됐다. 무엇보다 사과 경매가 시작되자 상인들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변했다.

다른 과일 경매와 달리 사과 경매는 시작에 앞서 경매사의 설명이 있었다. 경매사는 “사과가 많지 않다. 전국적으로 수량이 부족해 오늘을 포함해 2~3일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며 “입찰가격을 평소보다 올리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다.

당장 한 상인은 평소 공판장 내부에는 전국에서

올라온 사과가 20m 길이로 다섯 줄 넘게 깔렸는데 이날은 두 줄에 불과하다고 귀땀했다.

사과 경매가 시작되고 거창에서 생산된 홍로 10kg짜리가 8만3000원에 낙찰됐다. 이날 최고가로 수량이 적은 만큼 평소보다 비싼 가격에 낙찰됐다. 가격을 확인하던 상인들은 혀를 내둘렀다.

한 상인은 “사과 가격이 사악하다. ‘특’ 상품이라도 전년엔 6만원 정도였다”며 “추석 선물로 사과를 고민하던 손님들도 비싸서 다른 품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그래도 명절 차례상에 빠질 수 없는 과일이라 서민들 고민이 이만저만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사과와 배, 복숭아 등 과일 가격이 끝을 모르고 오르면서 시민들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고물가로 가득이나 얹어진 ‘지갑 사정’에 성수품 가격마저 치솟으면서 명절을 목전에 두고 기대감보다 근심이 앞서는 분위기다.

10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지난 4일 기준 따르면 사과(홍로) 10kg 중도매인 판매가격은 8만4800원으로 전년 가격인 5만1038원보다 66.15% 증가했다.

복숭아(백도)도 4kg 기준 평년 1만8080원보다 108% 오른 3만7600원 올랐고, 배(신고)도 15kg 기준 6만4100원으로 평년 4만8130원보다 33.2% 비싸졌다.



지난 9일 오전 광주시 서구 매월동 서부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청과공판장에서 사과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8일 추석 선물세트 구입 차 단골 청과점을 찾았던 직장인 최모(57)씨 역시 과일 가격을 듣고 발길을 돌렸다.

최씨는 “지난해 5kg 사과 선물세트를 5만원에 샀는데, 올해는 8만7000원이라고 하더라”라며 “선물로 계획한 예산을 50% 넘게 초과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명절 선물 구매 시기가 되면 과일 가격은 현재보다 더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 9월호 과일” 보고서 통해 지난해 동월 대비 사과는 최대 160%, 복숭아는 60%, 캠벨얼리는 57% 오른 것으로 봤다. 사과와 복숭아, 배 등이 연초 냉해와 폭염, 태풍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데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며 도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김광만 농협 광주공판장 경매부장은 “조만간 선물세트용 5kg들이 상품이 공판장에 나와봐야 알겠지만, 생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며 “올해 유독 악재가 많은 데다 수산물 선물을 기피하면서 과일 가격이 비싸진 탓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

중기 10곳 중 3곳 “추석 자금 사정 어렵다”

필요자금 대비 평균 1280만원 부족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은 추석 명절 자금 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중앙회가 지난달 21일부터 9월 1일까지 중소기업 8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추석자금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추석 대비 올해 자금사정이 곤란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26.9%로 나타났다.

‘월할하다’고 응답한 기업(15.8%)보다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다는 것으로, ‘전년 수준’이라는 응답은 57.4%였다.

자금사정이 곤란한 주원인(복수응답)으로 ‘판매·매출 부진’(77.7%)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인건비 상승’(36.7%), ‘원·부자재가격 상승’(33.0%), ‘대금회수 지연’(11.6%) 등 순이었다.

은행과 정책금융기관 등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

달 여건이 지난해 추석 대비 원활하다는 응답은 16.1%였다. ‘곤란하다’는 응답은 14.0%였고, ‘전년 수준’은 69.9%였다.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시 주요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 ‘높은 대출금리’(41.6%)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고금리 여파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밖에 ‘과도한 서류 제출요구’(6.5%)와 ‘대출한도 부족’(5.8%) 순으로, ‘별다른 애로사항이 없다’고 답한 기업도 52.5%로 나타났다.

올해 추석 자금으로 필요한 금액은 평균 1억 1560만원이었다. 필요자금 대비 부족한 자금은 평균 128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조사결과 대비 필요금액(1억5700만원)과 부족금액(2200만원) 모두 감소한 것이다.

부족한 추석자금 확보 방안(복수응답)으로는

‘납품대금 조기회수’(44.4%), ‘금융기관 차입’(20.4%), ‘결제 연기’(19.4%) 순이었다.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응답은 25.9%였다.

한편, 중소기업 2곳 중 1곳(48.3%)은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이 있다’고 응답해 상여금 지급 비율이 전년(37.3%) 대비 11.0%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여금 지급 수준도 전년보다 증가해 정월 지급 시 기본급의 50.0%에서 올해 53.7%(+3.7%포인트)로, 정액 지급 시 1인당 40만2000원에서 올해 44만7000원으로 11.2% 늘었다.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장은 “추석 자금수요 규모 감소는 적지 않은 중소기업이 인건경영을 바탕으로 수출감소와 내수부진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며 “고금리·유가상승 등 어려움 속에서도 중소기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내수진작과 수출 지원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하반기 채용문턱 더 높아진다

대기업 10곳 중 6곳 “신규 채용 계획 없거나 미정”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고금리와 고환율, 중국발 경제위기가 우려 등 각종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직원 채용에 나서는 기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용문이 좁아지면서 청년들의 직장 구하기 역시 지난해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대졸 신규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 10개사 중 6개사 이상(64.6%)은 올해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중 ‘채용계획 미수립 기업’은 전년 대비 3.4포인트 증가한 48.0% 수준으로, ‘채용이 없다’고 답한 기업 또한 16.6%에 달했다.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한 기업 비중은 35.4%였는데, 전년과 비슷한 규모로 채용하겠다고 답한 기업은 57.8%로 조사됐다. 이외 채용을 줄이겠다는 기업은 전년 대비 무려 11.4%포인트나 증가한 24.4%로 파악됐다. 반면 채용을 늘릴 것이라는 기업은 전년 대비 19.2%포인트 하락한 17.8%에 불과했다.

기업들이 채용을 하지 않거나 채용 규모를 늘리지 않은 것은 수익성 악화와 경영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인건경축 돌입(25.3%)이 가장 많았다. 이어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 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인한 경기악화(19.0%),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증가 등에 대비한 비용 절감(15.2%) 등을 사유로 들었다.

이처럼 취업문이 좁아지면서 올해 대학을 졸업한 취업준비생들의 취업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대졸 신규채용 예상 경쟁률은 무려 평균 81대 1로 조사됐다. 지난해 경쟁률 77대 1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대졸 신규입사자 5명 중 1명(21.9%)은 경력이 있음에도 신입직원 채용에 지원한 이른바 ‘중고신입’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졸 신규입사자 중 ‘중고신입’ 비중은 ‘1%~10%’(23.6%), ‘20%~30%’(22.8%), ‘10%~20%’(19.7%), ‘30%~40%’(12.6%) 순이었다. ‘중고신입’의 경력 기간은 평균 1년 4개월이 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은행 “타이거즈 9연승에 적금 금리 쑥쑥”

연 0.35% 우대금리 확정...양궁적금·광주FC 메인 스폰 등 다양한 스포츠 마케팅 눈길

광주은행의 스포츠 관련 금융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지역 스포츠단의 성적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는 이상품들은 최근 KIA 타이거즈 등 상승세 속에 고객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0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판매가 종료된 ‘KIA 타이거즈 우승기원 예·적금’ 상품은 타이거즈의 성적에 따라, 예금의 경우 최대 4.05%를 제공한다.

적금은 동일한 우대금리에 팀 승수와 최종순위 등 최대 1.55%포인트를 제공하는데 기아가 최근 9연승을 기록하면서 0.35%포인트의 추가 금리가 확정됐다. <사진>

또 오는 9월 15일까지 판매하는 ‘텐텐(TenTen) 양궁적금’은 10월 중국 개최 국제대회에서 광주은행 TenTen양궁단과 광주여대 소속 선수의 경기 성적에 따라 우대 금리를 제공하기로 해 양궁팬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밖에 광주은행은 광주FC의 메인 스폰서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총 30억원의 후원 계약을 체결했고, ‘비츠로 배드민턴단’을 운영하는 등 지역 스포츠 관련 다양한 후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지역 스포츠를 사랑하는 고객들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공유하고자 다양한 접점 방안들을 강구해왔다”며 “앞으로도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의 사명감을 다하기 위해 지역 스포츠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경총, 1619회 금요조찬포럼 개최

광주경총자총협회(회장 양진석·최호원 회장)는 지난 8일 광주시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1619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학영 한국경제신문 고문이 강사로 나서 ‘고독한 리더, 위대한 생각의 힘’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 고문은 강연에서 “5층 아파트에 살아도 세상을 볼 수 있지만 15층 아파트는 더 많은 세상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각의 한계를 깨고 나아가면 생명이 지속되고, 한계에 갇히면 파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다양한 정보습득 기회를 마련해 광주·전남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글로벌 경쟁 시대를 맞아 지역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경총은 오는 15일 윤병태 나주시장을 초청해 ‘광주·전남의 통합방향’을 주제로 1620회 포럼을 개최한다.

광주경총의 금요조찬포럼은 1990년 6월 1일을 시작으로 지난 33년간 매주 금요일 개최되고 있다.

경제, 경영, 인문학 등 각 분야 저명인사와 전문가를 초청해 다양한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특히 한국기록원으로부터 국내 최장수 포럼으로 인증받기도 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로또복권 (제1084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8	12	13	29	33	42	5	
등위						당첨금(원)	당첨지수
1	6개 숫자일치					1,738,764,600	15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40,625,342	107
3	5개 숫자일치					1,447,523	3003
4	4개 숫자일치					50,000	151,391
5	3개 숫자일치					5,000	2,512,924